

연구 4

획기적 시대들과 경륜들, 신의 계획의 진전을 표시

- 하나님의 계획은 고정되고 체계적
- 세계 역사의 3 대 획기적 시대들
- 그 대 획기적 시대들의 특이한 면모들
- “땅은 영원히 지속 된다”
- 장차 오는 세상, 새 하늘과 새 땅
- 이 대 획기적 시대들의 분할
- 하나님의 계획의 중요한 면모들이 이렇게 드러남
- 알아낸 순서는 조화를 드러냄
-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

하나님의 계획은 고정되고 체계적

어떤 사람이 한 훌륭한 건축가이며 건축업자인 그의 기술과 지혜를 그의 미완성된 일로 미루어 무식하게 그릇 판단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도 몰라서 하나님의 미완성된 일로 미루어 하나님을 지금 그릇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훈육을 위해서 목인된, 그리고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마침내 뒤집혀 엎어질 사악의 거친 발판이 얼마 안 있어 제거되고 잠동사니가 일소 될 때 하나님의 **완성된 일**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권능을 널리 선언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영광스러운 성품과 조화되어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께서 명백히 고정된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그의 모든 목적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으므로, 그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뜻이 그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우리가 그 계획이 무엇인가를 부단히 연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목적의 고정됨을 얼마나 단호히 단언하시는지 주의해보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셨다. ‘분명히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되고, 내가 뜻한 바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뜻을 두셨는데, 누가 그것을 꺾을 수 있겠느냐? 그의 손이 뻗쳐졌는데,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겠느냐?” “다른 하나님이 없고 나 같은 이가 없다.” “나의 뜻이 서리니, 나의 기뻐하는 것을 내가 다 이룰 것이다 내가 그것을 구상하였으니, 또한 그것을 행할 것이다.”(사 14:24-27; 46:9-11)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심이 우연하거나 이상한 것같이 보이더라도 그의 말씀의 이 증언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고유하고 불변하는 계획이 체계적으로 완성을 향해서 진전했고 아직도 진전하고 있다는 것을 틀림없이 인정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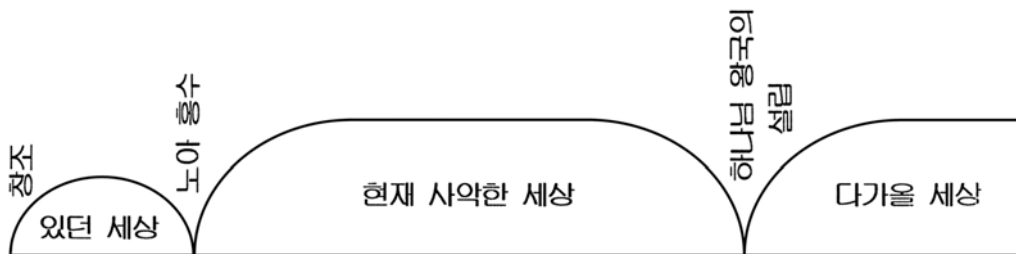
세계 역사의 3 대 획기적 시대들

무지함의 암흑가운데서 더듬어 찾고 있는 대부분의 인류는 그들이 조물주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실감 할 수 있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의 실제 진전을 기다려야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과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예언된 미래의 영광을 깨닫고,

따라서 그렇지 않으면 불가사의한 과거와 현재의 하나님의 관계를 헤아리게 되는 것이 그의 특권이다. 그러므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약속된 상속의 상속자들로서, 우리는 아버지 말씀에 전념하여, 그 안에 기록된 계획과 상술에서 그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말씀에서, 인간에 관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 창조에서 시작하여 끝없는 미래까지 미치는 3 대 기간을 걸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운다. 베드로와 바울은 이 기간을 “3 세상들”이라고 부른다. 그것을 우리는 다음 설명도에서 표시한다.

“세상들”이라고 불리는 대 획기적 시대들

이 3 대 획기적 시대들은 신의 섭리에 관한 3 개의 뚜렷한 증거를 표시한다.



그 대 획기적 시대들의 특이한 면모들

첫째 시대는 창조에서 노아 홍수 때까지이며, 천사들의 경륜 밑에 있었고, 베드로는 “있던 세상”이라고 부른다.(벧후 3:6)

둘째 시대는 노아 홍수 때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이며, “이 세상의 통치자”(요 12:31;14:30;16:11)인 사탄의 한정된 지배 아래에 있어, 그 까닭에 “이 현재 사악한 세상”이라고 부른다.(갈 1:4; 벧후 3:7)

셋째 시대는 신의 경륜 아래에 “끝없는 세상”(사 45:17)인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며, “다가올 세상”이라고 부른다. -거기에는 의가 깃들여 있을 것이다.”(히 2:5; 벧후 3:13)

이 3 기간(“세상”)들 중, 첫째 것은 천사들의 경륜 아래에 있었는데 실패하였다. 둘째 것은 찬탈자인 사탄의 통치 밑에서 참으로 “사악한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셋째 것은 온 세계의 천하 만민에게 다가올 의와 축복의 시대가 될 것이다.

마지막 두 세상들이 특별히 기재되어있고, 이 둘에 관한 진술들이 강한 대조를 이룬다. 둘째 시대(현재 시대)는 “현재 사악한 세상”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그 안에 선이 전혀 없어서가 아니고 그 안에 악이 지배하도록 묵인되어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말하였다, ‘지금 우리는 주재님은 사람들을 가리켜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세움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시험한 그들조차도 무사히 지내고 있다.’”(말 3:15) 셋째 세상(획기적 시대)은 “의가 깃들여 있

을 다가올 세상”이라고 기재되어있다. 이것은 그 안에 악이 전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악이 지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죄를 없애는 것은 점진적이어서 첫 천년 전 기간이 걸릴 것이다. 그 때에는 악이 지배하지 않을 것이다. 악이 번성하지 못하고 악인들이 다시는 번영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날에는 의로운 자가 돌아날 것이다.”(시 72:7) “너희가 기꺼이 잘 들으면, 땅의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사 1:19), “행악자들은 끊어질 것이다.”(시 37:9)

이렇게 본 바와 같이, 다음의 경륜은 거의 모든 점에서 현재의 경륜과는 반대가 될 만큼 다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왜 현재와 미래의 경륜들 사이에 차이가 있게 되는 가를 보여주신다. 다가올 세상에서는 주님이 왕(통치자)이 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의와 진리가 번성할 것이고, 현재 이 악한 세상에서는 사탄이 통치자이기 때문에 악이 번창하고 악인들이 번영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세상의 통치자는 “내게 아무런 힘도 없다.” 그 결과로 사탄은 주님의 추종자들을 반대하고, 유혹하고, 괴롭히고, 치는 것 외에는 그들에게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14:30, 고후 12:7) 이 현재 악한 세상(획기적 시대)에서는 누구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고, 악인들은 푸른 나무 같이 무성하다.(시 37:35; 딤후 3:12)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왕국은 이 세상이 아니다.” 그리고 그 연대(‘다가올 세상’)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의 왕국은 땅을 지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소망하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다.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십시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사탄이 “이 어두움의 세상의 통치자”이다. 그러므로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덮고 있다” 사탄이 불순종한 아들들의 마음가운데서 지금 지배하고 역사하고 있다.(마 6:10; 엡 6:12; 사 60:2; 엡 2:2)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훌륭한 건축가의 계획의 어떤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직 완전히 진전되어 있지 않았음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으면 새 왕과 새 경륜이 오래 전에 소개됐을 것이다. 왜 그 중요한 부분이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기되었는가 하는 것과 사탄아래 현재 악의 지배에서 그리스도 아래 의의 지배로 바뀌는 방법은 중요한 점들이다. 이 두 점들이 지금부터 충분히 증명 될 것이다. 지금 사탄을 순종하는 세상의 왕국들이 적합한 시기에 우리 주님과 당신의(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이라는 것만을 지금은 말 해두자.(계 11:15) 문맥은 이 전환이 전반에 걸치는 환란 때에 이루어 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 전환에 관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의 가재도구를 강탈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셨다.(막 3:22-27)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와 평화의 통치가 설치되기 전에 사탄이 먼저 결박돼서 감금되고, 폐하여져야 된다고 우리는 배우고 있다. 따라서 이 사탄을 결박하는 것이 새 경륜의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계 20:2)

“땅은 영원히 지속 된다“

이 땅이 이 모든 ‘세상들’과 경륜들의 근거라는 것과 연대들이 지나가고 경륜들이 바뀌어도, 땅은 여전히 존속한다(“땅은 영원히 서 있다.”(전 1:4))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베드로는 똑같은 상징을 계속 써서 각기 3 기간을 따로따로 하늘과 땅이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하늘**이란 말은 더 높은 영적 지배적인 권력을 상징하고, **땅**은 인간 정부와 사회조직을 상징한다. 이렇게 첫 하늘과 땅(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사태의 질서와 조직)은 그들의 용도가 완성됐기 때문에 노아 홍수 때 끝났다. 그러나 실제의 하늘(하늘과 대기)과 실제의 땅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남았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하늘과 땅)은 큰 소리와 뜨거운 불과 용해 -혼란과 환난과 붕괴로 소멸- 될 것이다. 결박되는 힘센 사람(사탄)이 자기 권세를 유지하려고 투쟁할 것이다. 실제의 하늘과 땅이 아니고 현재의 질서와 정부의 조직과 사회가 사라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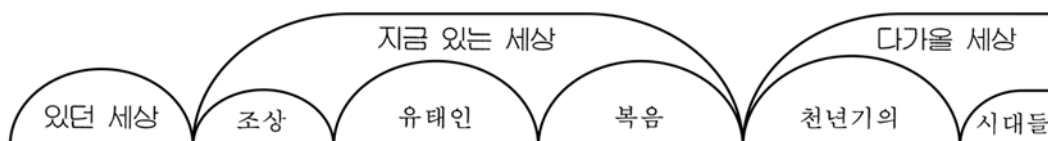
현재의 **하늘**(영적 지배의 권력들)은 “새 하늘”(그리스도의 영적 지배)에 자리를 내 주어야 한다. 현재의 **땅**- 사탄의 지배 밑에 지금 조직되어 있는 인간사회-은 “주의 날” 시초에 “가마처럼 불타”(말 4:1) 용해되고 부서져야 한다. 현재 인간사회는 “새 땅”으로, 즉 땅의 새 왕(그리스도)과 조화되어 조직된 사회로 바뀌질 것이다. 현재 조직이 새롭고 보다 좋은 왕국으로 바뀌질 때, 의로움과 평화와 사랑이 인간들 사이에 널리 행하여질 것이다. 그 새로운 왕국의 기준은 가장 엄격한 공정일 것이다.

장차 오는 세상, 새 하늘과 새 땅

바울은 그 다음의 경륜, 그가 부르는 바, “다가올 세상”을 언뜻 보았다. 바울이 말하기를, 시간이 미래로 흘러가 사태의 새로운 상태인 “새 하늘”, 그러므로 “셋째 하늘”로 그가 “이끌려 갔다.” 육체적이었는지 정신적이었는지, 둘 다였는지 그 자신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본 견해로는 아주 실재였다고 했다. 이렇게 그는 그가 알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적 지배 밑에 있게 될 사태를 보았다.(고후 12:2-4) 틀림없이, 바울이 본 것들은 요한이 그 후에 본 것과 똑같은 것들이었고, 요한은 오직 때가 되어야만 그 의미들을 이해 할 수 있는 **상징들**로 교회에게 표현하도록 허락 받은 것들이었다. 파트모스(Patmos) 섬에서 주님의 계시를 받는 동안에 요한은 환상 속에서 기독교 시대와 기독교 시대의 교회와 국가의 변천하는 광경을 통하여 현재 사악한 세상(시대)의 끝날 까지 미래로 이끌리어, 그 미래의 예언적 환상에서 그는 사탄이 결박되고, 그리스도의 군림과 확립된 새 하늘과 새 땅의 계시를 받았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계 21:1)

시대들과 경륜들

밑의 도표에 예증된 것처럼 대 획기적 시대들이 시대들로 분할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유의한다.



이 대 획기적 시대들의 분할

이 대 획기적 시대들(“세상들”) 중 첫째 것은 분할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하시는 방법은 그 시대 전체(아담이 타락한 때에서 노아 홍수 때까지)를 통하여 변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인간 본성 속에 기록된 그의 율법을 인간에게 주셨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한 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대체로 “사악을 계속적으로” 범하여 타락하는 진로에 내버려두셔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심으로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수 있게 하셨다. 그 첫 경륜은 충실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두를 휩쓸어간 홍수로 끝났다. 그래서 첫 경륜은 최악의 재난의 결과를 나타낼 뿐이 아니라, 최악의 경향은 더 큰 타락과 불행으로 빠진다는 것과 만일 인간이 ‘잃은 것’ 곧 첫 지위를 회복하려면 여호와와의 개입이 필요함을 증명한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둘째 대 획기적 시대(“지금 있는 세상”)는 3 시대를 포함한다. 각 단계는 하나님의 계획안 가운데 악을 타도하기 위해서 있다. 매 단계는 먼저 첫 보다 더 높고 그 계획을 추진하여 완성에 더욱 가깝게 한다.

셋째 대 획기적 시대(“다가올 세상”)는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미래를 나타내는데, 천년 시대(“만유의 회복의 날”)를 포함한다. 대 획기적 시대 다음에 오는 또 다른 ‘다가올 여러 시대’의 상세한 내용은 계시되어 있지 않다. 현재의 계시들은 최악에서 인간의 회복을 다루고, 다음에 올 영원한 영광을 다루지 않는다.

“지금 있는 세상”에서 첫째 시대를 조상의 시대(조상의 경륜)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관계와 총애는 소수의 개인들에게만 있고 나머지 인류는 무시되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총애를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인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었다. 이들의 각기는 차례대로 하나님의 총애를 받아온 자인 것 같다. 야곱이 죽었을 때 그 시대나 관계의 체제는 끝이 났다. 야곱이 죽었을 때 그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라고 처음 불리고, 그 전부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전형적인 제사들을 통해서 전형적으로 “거룩한 나라”였고, 그들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다른 나라에서 별거되었으며, 따라서 어떤 특유한 총애를 받았다.

야곱의 죽음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끝나는 신의 계획의 이 면모를 위해서 할당된 이 시기를 유대인의 시대(율법의 경륜)라고 부른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국민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을 주시고 특별한 계약을 그 국민과 만드셨다. 그들에게 천막을 주셨으며, 지성소 안에 있는 그의 쉬카이나(shekinah) 빛의 영광은 그들의 지도자와 왕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임재를 의미한다. 그 유대 국민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셨으며, 마침내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이적들을 행하시며 그들 가운데서 가르치시고, 다른 국민들에게는 가시려 하시지 않으시며 제자들까지도 주위의 나라들에 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다. “이방사람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의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라. 그 대신에,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은 양들에게로 가라.”(마 10:5,6) 라고 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다. 다시 또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은 양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마 15:24) 이 국민 특유의 총애는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함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끝났다는 것이 “당신

들의 집이 당신들에게로 버린바 될 것이오.”라고 못 박히시기 닷 세 전에 하신 예수님 말씀에 나타나 있다.(마 23:38)

하나님의 계획의 중요한 면모가 이렇게 드러남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 기독교의 시대/복음의 경륜. 그 기간에 ‘의롭다고 인정되는’ 좋은 소식을 유대 국민에게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에게도 포고 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을 맛보셨기 때문이다.(히 2:9) 이 복음시대에도 역시 특별한 호의를 위해 부름을 받은 한 계급이 있으며, 그 계급에게 특별한 약속들이 마련되어 있다. 이 계급은 곧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나 주님으로 받아드리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그들을 말한다. 복음(좋은 소식)의 포고가 여기저기에 1 천 9백년 간 온 땅에 두루 퍼졌기 때문에 복음이 대체로 **각 나라마다** 전도되었다고 지금 말할 수가 있다. 이 복음의 포고는 많은 국가의 국민들을 개종하지는 못하였다. 이 시대에 개종하는 것은 계획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복음의 포고는 여기저기에서 몇 소수씩, 모두해서 “적은 무리”라고 일컫는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했다. 예수님께서서 예언하신 대로(눅 12:32) 다음 시대에 이들에게 왕국을 주시는 것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

알아낸 순서는 조화를 드러냄

이 시대로 “현재 사악한 세상”은 끝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걸으로는 그의 대의를 손상하는 듯 하는 사악의 우세와 지배를 묵인해 오셨지만, 하나님의 깊은 계획은 고정되고 뚜렷한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시기에 정확한 순서를 따라 꾸준히 진전했다. 이 시대의 끝에, 그에 잇따른 천년시대의 초기에 사탄이 결박되고 그의 권력이 타도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설립과 “의가 깃들여 있을 다가올 세상”(벧후 3:13)의 시작을 위한 준비이다.

일천년을 의미하는 천년 기는 이미 요한계시록 20:4에 언급한 기간 - “다가올 세상” 안에서 첫 시대인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담의 타락 때문에 잃은 모든 만물이 천년시대에 회복될 것이며(행 3:19-21) 천년시대가 끝나기 전에 모든 눈물이 닦여질 것이다. 천년시대의 끝을 지나서 다음에 오는 행복의 시대에서는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슬픔과 부르짖음도 없으며 더 이상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것이다.(계시 21:4). 하나님의 계시는 그 이상 열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멈춘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

우리는 여기에서 다만 그 시대의 이러한 계획을 개관했다. 더 연구하면 할수록 그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조화, 미, 질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각 시대는 하나님의 계획의 전체로서 완전한 발전에 필요로 하는 각 시대가 성취할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 계획은 점진적인 것이고, “모든 것을 당신의 뜻이 의도하는 대로 움직이시는”(엡 1:11) 건축가 신의 본래의 계획의 웅대한 완성을 향해 위로 앞으로, 시대에서 시대로 점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 큰 기간의 어느 하나도 그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너무 길거나 너무 짧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단이 무한하시지만 시간과 방법의 지혜로우신 경제가이시다. 그리고 권력이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의 목적들을 잠깐이라도 지체하거나 좌절케 할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의 감독과 지배

아래, 선한 것뿐이 아니라, 악한 것, 그 모든 것이 함께 그의 뜻의 성취를 이룬다.

복잡한 기계의 전부나 한 부분이라도 한 어린아이에게는 혼동으로 보이는 것 같이, 하나님의 계획의 복잡한 기계의 구조를 단지 조금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하고 훈련이 안된 사람에게는 그것이 무질서, 혼동, 실패로 보인다. 미숙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의 복잡한 기계의 구조를 이해 할 수 없으며, 그 기계의 바퀴들과 피대들이 반대방향으로 움직임은 단지 혼동일 뿐이다. 그러나 성숙한 마음과 연구는 겉보기에 혼동과 같은 것이 훌륭한 결과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아름다운 조화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그러나 기계는 그 어린아이가 기계의 운영을 이해하기 전이나 이해한 후에도 마찬가지로 진실로 성공이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 시대에 걸쳐서 성공적인 운영을 했고, 운영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 계획의 복잡한 일들을 인간으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함뿐이 아니라, 행복 된 결과들을 경험도 할 수 있도록 인간이 필요한 훈련을 받아오고 있다.

우리가 신의 계획에 관한 연구를 추구하는데, 이 시대들과 각각의 특수성들과 목적들을 기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마침 고리 하나는 연쇄가 아니고, 여러 고리들이 결합되어 연쇄를 형성하는 것과 같이, 여러 시대 가운데 계획은 **아무 한 시대 안에서** 보이지 않고 **모든 시대 안에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각 부분의 독특한 특징을 유의함으로서 전체 계획의 정확한 관념을 얻는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딤후 2:15)

한 획기적 시대나 경륜에 속하는 말씀의 성명은 다른 획기적 시대나 경륜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한 시대의 진술된 일들은 다른 시대의 진술된 일들에 언제나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례로, 현재에 관해서 말하기를, 땅이 여호와와 지식으로 가득 찼다거나 각각 자기 친구와 형제를 가르쳐 너희는 여호와를 알아라! 고 말하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사 11:9; 렘 31:34)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일 것이다. 이것은 이 시대에 있어서 사실이 아니고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 주님이 그의 왕국을 설치하실 때까지 사실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통해서 많은 미혹하는 속임이 있었으며, 이 시대의 바로 종말에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마지막 날에 ...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그릇 인도하기도 하고, 그릇 인도 되기도 할 것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이다.(딤후 3:1,13)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땅이 틀림없이 여호와와 지식과 의로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은 천년시대에 메시아의 통치의 결과로 이루어질 것이다.(사 11:9; 합 2:14)

이 비슷한 오류이며 매우 일반적인 오류는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설립되고 있고, 지금 땅을 다스리고 있다고 추측하며, 하나님의 뜻이 전 세계 국민들 중에 지금 이루어진다고 추측하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진리와는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이 세상 왕국들은 사람들의 증가하는 지성이 허락하는 만큼 대부분은 압제와 부정과 속임을 통해서 지탱되고 있고, 부유하게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세상의 통치자”(요 12:31,14:30,16:11)인 사탄이 제거되어야 하며, 그리스도가 친히 큰 권세를 잡으시고 왕으로서 통치하실 때, 지금 사탄의 지배 밑에 있는 이 세상 나라들이 우리의 주와 당신(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야 한다.

지금 믿음으로 식구가 된 사람들에게 밝힐 때가된 빛으로, 우리는 과거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중하게 진전하심을 표하는 그 특별한 제도와 질서를 식별한다. 그리고 쿠퍼(William Cowper)가 전능하신 여호와와의 뜻의 자취를 찾아낼 수 없을 때에 신뢰하는 산 믿음으로 감명을 받은 아름다운 단시가 강렬히 생각에 떠오른다.

그가 그것을 알기 쉽게 하리라

“하나님은 신비롭게 움직이신다,
그의 불가사의한 일을 실행하시기 위해,
그는 그의 발자국들을 바다에 내시며
폭풍을 타고 달리신다.

“측량할 수 없는 깊은 광산에서
실패 없는 솜씨로,
그는 그의 빛나는 계획을 마음에 새기신다,
그리고는 그의 주권의 뜻을 성취하신다.

“두려워하는 성도들이여, 새로운 용기를 갖기를,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구름들은
큰 자비를 지니고 있고,
갑자기, 너희 머리 위에 축복을 퍼부을 것이다.

“미약한 직감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나 그의 은총을 얻기 위해 신뢰하라.
험한 섭리 뒤에
미소하시는 얼굴을 그는 숨기신다.

“그의 목적들은 빨리 익을 것이다,
시시각각 나타내시면서,
봉오리가 쓴맛이 있을지 모르나,
그와 달리, 꽃은 달 것이다.

눈 먼 불신은 반드시 그릇되고,
그의 일을 헛되이 대충 훑어본다,
하나님은 자신의 해석 자 이시고,
그리고 그가 그것을 알기 쉽게 하실 것이다.

“내 앞일을 모르노라,
기쁨이나 슬픔이 있을지,
어떤 구름이 앞날을 위협할지,
어떤 꽃이 길가에 피게 될 런지,
그러나 내 옆에서 동행하시는 한 분이 계시니,
화복 어느 경우에도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로 내가 위로와 위안을 삼느니,
‘그는 내가 가는 길을 아노라.’”